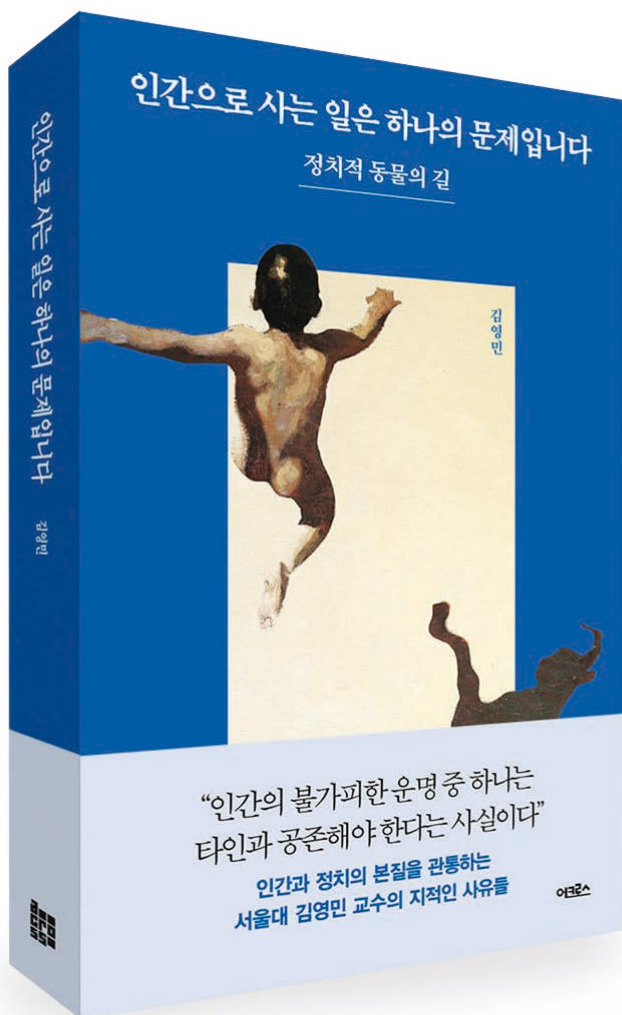


책으로 세상을 읽다

정치에 ‘희망’이라는 달달한 것이 남아있다면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김영민 지음, 2021 / 출처 : 어크로스 출판사

얼마 전 한 나라의 지도자를 결정하는 큰 선거가 있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가 정치적 열망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 어느 순간보다도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결집하는 즐거운 축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랬던 것 같지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별 기대 없이 투표장에 나왔다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다. 호감 가는 후보가 없다고들 한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정치에 희망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치가 내 삶을 바꿀 것이란 믿음이 사라진 오늘이다. 그리고 하나둘 정치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효능감이 부재한 시대. 정치의 현실이 비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정치에 뛰어든다. 삶이란 문제로 가득하고, 문제는 결국 정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밀어내려 할수록 정치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 아이러니. 책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 정치적 동물의 길』(2021)은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 저자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는 정치와 인간의 애증 관계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한편,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를 일러주고 있다.

즐거이 - 애증의 정치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정치가 가진 의미와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규정하고, 인간은 집단생활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동체라는 정치 질서가 없으면 인간은 폭력이 난무하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갈등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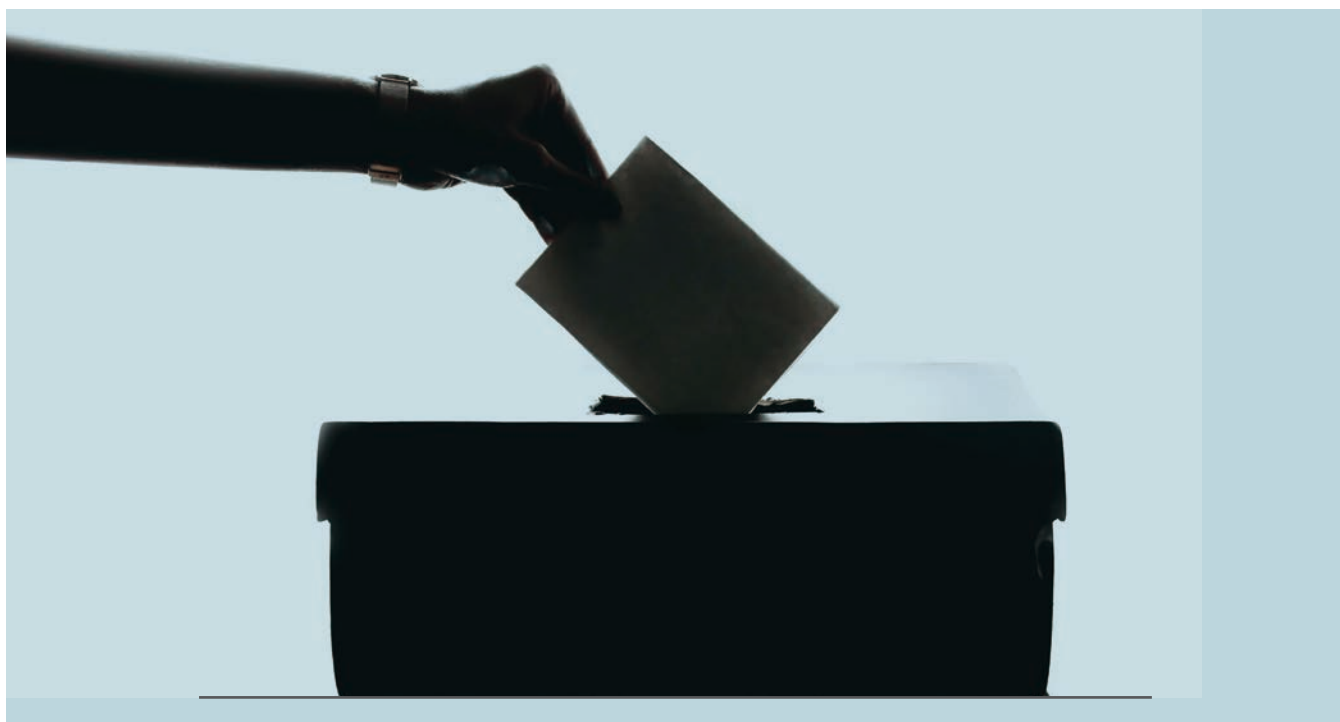
화적으로 해결하고 공생을 도모하는 데서 정치의 필요가 생겨난다. 물론 정치가 항상 우리 삶을 위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정치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 주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아무리 정치가 ‘허구’로 보일지언정, 그 허구라는 희망이 있어야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말한다.

2부에서는 정치가 우리 삶에 호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이 정치적 존재로 변신하는 이유는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다. 투표는 인간이 정치적 인간으로 변신했던 위대한 경험을 되살리는 축제다. 물론 투표에 담긴 강렬한 열망이 제도권 정치를 통해 실현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냉소에 빠진다. 그러나 저자는 냉소주의적 태도에서도 여전히 정치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될 기회라고 말한다. 저자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목전의 욕망에 함몰되지 않고 멀리 전체를 보는 시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유권자와의 즉흥적인 질의응답을 두려워 않는 자신감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3, 4부에서는 정치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장소는 정치에 대한 상상력을 좌우한다. 공부에 알맞은 공

간에서 공부가 더 잘되는 것처럼, 어떤 공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치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예컨대 어디에 어떤 규모의 광장이 있느냐에 따라 집회의 규모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저자는 국가를 몸이라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몸의 각 부분이 상호 연결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머리에 해당하는 정부가 에너지를 각 기관에 분배하지 못하면, 몸의 각 부분은 해체되고 만다. 예컨대 다민족 국가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다민족 외에도 여성, 인구, 아파트, 전염병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에서 정치가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정치적 삶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검토한다. 저자는 세상을 문제와 답으로 재구성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은 보통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그는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사람을 경계한다. 또 저자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사회계약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새로운 공동체의 사회계약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하



투표는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 행위다 / 출처 : Pexels



현대 사회의 핵심 문제인 인구, 아파트, 전염병 / 출처 : Pixabay, Pexels



기도 한다. 결국 성찰하는 자세만이 인간의 특권이며, 이를 통해 ‘생각의 공화국’이라는 이상적 정치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막연하게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만 주장했다면 이 책이 그렇게 와 닿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좌절에 먼저 공감을 표한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해준다.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말이다. 그렇다고 복잡한 강이나 이론을 설파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저자는 이런 서술 방식을 통해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을 넓혔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등장하는 예술작품의 장면들이다. 이 책이 ‘미학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지점이다. 저자는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마다 그림, 영화, 문학 등 다양한 예술적 소재를 접목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펠릭스 발로통의 <소나기>라는 작품과 하나부사 잇초의 <비를 피함>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는데, 두 그림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자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는 각계의 모든 사람이 단결한다’라는 맥락을 설명했다. 그냥 얘기하면 매우 단조로울 수 있는 내용도 예술을 곁들여 의미를 되살린다.



펠릭스 발로통의 <소나기> (1894)

저자는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욕망’을 지목한다. 저자는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욕망이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고, 정치 역시 더 나

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의 실현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저자는 “욕망을 무시하는 것은 삶을 혐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52쪽) 라고 말한다. 욕망과 목표가 있으면 정치 또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욕망이 욕심을 만들고 그 결과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적절한 욕망의 발현이 정치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저자가 정치에 관한 일반적 관념을 뒤집는 대목은 하나 더 있다. 보통 정치와 잘 연결되는 가치는 ‘정직’, ‘투명’ 등이다. 그런데 저자는 ‘허구’와 ‘신화’, ‘서사’를 이야기한다. 특히 저자는 역사가 에드워드 모건을 인용해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허구라고 묘사한다. 다수인 국민이 다스리는 정치체제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허구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꾀변이 아니라, 삶의 필요가 요청한 믿음의 대상”(79쪽) 이다. 국민주권이라는 허구를 믿음으로써 대의정치라는 정치 질서를 유지할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서사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석하자면 설령 우리가 믿는 가치가 아직 실체가 아닌 ‘픽션’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런 ‘희망’이 존재해야 정치를 지속해나갈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정치에서 픽션은 삭막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정치하는 인간이 왜 가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질서와 틀에 순응할 뿐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시인 신해옥의 표현을 빌려 “이 사회에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수동태 문장으로 된 자서전을 쓰는 일이다”(291쪽)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저자는 책 전체에 걸쳐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상을 문제와 답으로 재구성해볼 수 있는 생각’(254쪽), ‘새로운 공동체의 사회계약을 모색해볼 수 있는 생각’(291쪽), ‘정치를 위한 더 나은 공간을 창출하려는 생각’(155쪽) 등... 저자에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생각의 공화국’이고 이상적 정치 공동체다.

저자는 “현실이 힘겨운 사람들은 현실의 가장자리인 해변으로 간다”(169쪽)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정치’의 가장자리인 해변에 와 있다. 현실의 정치가 너무나 비천해서 잠시 해변으로 도피해 있다. 웬지 다시는 정치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저자는 동시에 말한다.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고. 아무리 정치가 미워도 인간은 정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조금 더디고 느리더라도 더 나은 공동의 삶을 만드는 과정에 뛰어들어야 한다. 저자는 우리가 담대히 정치적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준다. 정치적 해변에서 방황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